

# 광주·전남 공사 7명,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향해 싸라

오늘부터 양궁 국제 3차 선발전  
2차 통과 남녀 공사 40명 열린  
남녀 16명 가린 후 최종 8명 선발  
최종 평가전 후 1~4위 항저우 행



오예진(왼쪽부터), 안산, 최미선 등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 참가하는 광주 여공사들이 19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연습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양궁협회 제공**

기보배(광주시청)와 안산(광주여대), 이승윤(광주 남구청) 등 광주·전남 소속 남녀 공사 7명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티켓을 걸고 마지막 승부를 펼친다.

19일 대한양궁협회에 따르면 2023 국가대표(리커브) 3차 선발전이 20일부터 25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이번 3차 선발전은 지난해 2차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각 20명의 공사들이 참가해 태극마크를 향한 치열한 열전을 펼친다.

20일 1회전(70m·36발X4회, 동시발사 6발)을 치른 후 남녀 각 16명씩을 가린다. 이후 21~24일 2~5회전 결과에 따라 남녀 각 8명의 태극마크를 선발한다.

이들은 순위평가전을 통해 상위 남녀 1~4위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자격을 획득한다.

이번 선발전에는 기보배, 최민선(이상 광주시청), 최미선(광주은행), 안산, 오

예진(이상 광주여대), 이은경(순천시청) 등 광주·전남 여공사 6명이 여자부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안산과 최미선은 '태극마크 사수'에 나선다. 안산과 최미선은 지난해 국가대표 최종 평가전을 통과하고 순위 평가전에서 3, 4위를 차지하며 항저우아시안게임 티켓을 따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회가 연기되면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된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각각 2, 3위로 통과하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은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기회와 도전'의 연속"이라며 "항상 '처음처럼' 매 경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사대에 선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가 매년 대표팀 선발전이라는 힘든 여정을 극복하는 원동력"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은 "지난해 창당한 광주은행 '텐-텐 양궁단'의 맏언니로 책임감이 크다. 컨디션도 좋고 자신감도 크다. 새로 창단된 팀의 기대가 큰만큼 걸맞는 성적을 낼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 공사' 기보배는 양궁 그랜드슬램에 도전한다. 기보배는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을 비롯해 세계선수권, 양궁월드컵에서 다수의 금메달을 따냈지만 아시안게임과는 인연이 없었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땀지만 개인전 금메달을 놓친 그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아시안게임에 대한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 높은 훈련으로 열정을 쏟았다.

기보배가 꿈을 이룬다면 2000년대 최고의 여자양궁 선수로 군림하며 한국 양궁 사상 유일하게 그랜드슬램을 이룬 박성현에 이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지난해 부상으로 선발전을 뛰지 못한 최민선은 태극마크 탈환을 위해 독한 각오로 경기에 나선다.

울산스포츠과학고 재학 중 태극마크를 탈며 주목을 받았던 오예진은 광주여대에서 갈고 닦은 경기력으로 진가를 발휘한다는 각오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거머쥔 이은경(순천시

청)는 아시안게임 2연패 도전을 이어간다.

남자부에서는 이승윤이 태극마크 수성과 함께 명예회복을 베퐬는다.

2016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윤은 지난해 최종 순위평가전에서 도쿄올림픽 3인방(김우진-김제덕-오진혁)에게 아쉽게 내준 아시안게임 티켓을 반드시 탈환한다는 각오로 사대에 선다.

한편 2012 런던 기보배, 2016 리우 최미선, 2021 도쿄 안산 등 올림픽 양궁 3회 연속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양궁 명문 광주여대는 이번 선발전에 5명의 선후배가 나서는 진기록을 세웠다.

기보배(2006학번), 최미선(2015학번)·곽진영(전북도청·2015학번), 안산(2020학번), 오예진(2022학번)이 선후배 우정을 뛰어넘는 진검승부를 펼친다.

이들을 조련한 김성은 광주은행 감독 겸 광주여대 감독은 "국제대회 경험, 양궁에 대한 열정, 타고난 경기력 등 제각각 장점이 뚜렷한 만큼 우열을 가리긴 쉽지 않다"며 "누가 최고의 당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서느냐가 미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stone@jnilbo.com

## KIA '좌완' 양현종·이의리, WBC 후유증 '갈끔'

양, 3.1이닝 1피안타 3K 무실점  
이, 3이닝 4피안타 3K 1실점



KIA타이거즈 '대투수' 양현종에게 WBC 후유증은 없었다. 시범경기 첫 등판서 견재함을 과시했다. '차세대 에이스' 이의리 역시 무난한 투구로 걱정을 잠재웠다.

양현종은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2023 KBO 리그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3.1이닝 1피안타 3탈삼진을 기록했다. 45구를 던져 실점과 볼넷을 허용하지 않은 완벽투였다.

양현종은 11타자를 상대로 직구(26개)와 체인지업(11개), 슬라이더(6개), 커브(2개)를 섞어던지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4km, 평균 구속 140km가 찍혔다.

이의리는 5회초 구원 등판해 3이닝 4피

안타(1피홈런) 2볼넷 3탈삼진 1실점으로 무난한 투구를 보였다. 첫 상대인 신성현에 홈런을 허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이의리는 14타자를 상대로 직구(34개)와 체인지업(15개), 슬라이더(5개), 커브(2개)를 구사하며 경기 감각을 조절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51km, 평균 구속 147km를 기록했다.

김종국 감독은 경기 후 "오늘 마운드 운용은 양현종과 이의리의 컨디션 점검이 핵심이었다"며 "두 투수 모두 계획된 투구수를 채웠다는 게 만족스럽다. 양현종은 좋은 투구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몫을 다 해줬고, 이의리의 경우 제구에서 약간의 불안감을 보이긴했지만 개막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잘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KIA는 좌완 듀오의 6.1이닝 1실점 패투에 힘입어 8-1로 이겼다.

한규빈 기자



광주도시공사, SK슈글즈에 24-30 역전패

광주도시공사 김지혜가 19일 경기도 광명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SK슈가글라이더즈와의 3라운드 경기

에서 강경민에게 패스를 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전반전을 14-12로 앞섰으나 후반전 들어 에이스 강경민의 무득점 부진으로 24-30 역전패를 당했다. 최근 2연패 부진에 빠진 광주도시공사는 승점 26(12승 2무 3패)에 머물며 삼척시청(13승 1무 3패·승점 27)에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내려앉았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 '골·골·골' 광주FC 아사니, 올 시즌 K리그1 첫 해트트릭

광주축구전용구장 첫 해트트릭  
광주FC, 인천에 5-0 대승...5위



'알바니아국가대표' 광주FC 아사니가 시즌 첫 해트트릭으로 팀의 홈 첫 승을 이끌며 새로운 에이스로 떠올랐다.

아사니는 지난 1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4라운드 홈 경기에서 3골을 몰아치며 해트트릭을 작성했다.

아사니는 올시즌 K리그1 첫 해트트릭 기록과 함께 시즌 4골로 득점 선두에 올랐다. 또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의 첫 해트트릭 주인공이 됐다.

아사니는 이날 경기를 앞두고 오는 28일 폴란드와 2024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예선을 치를 알바니아 국가대표

팀에 발탁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사니의 A대표 승선은 처음이었다. 아사니는 국가의 부름에 해트트릭으로 응답했다.

아사니는 경기 시작 8분 만에 강력한 원발 중거리 슈팅으로 인천 골망을 가르며 골 잔치를 예고했다.

전반 19분 엄지성과 후반 4분 이희균의 추가골로 3-0으로 앞선 후반 23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이민기의 크로스를 원터치 후 원발 슈트로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26분에는 30m 거리의 강력한 원발 프리킥으로 인천 골문 오른쪽 상단 구석을 찔렀으며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아사니는 북마케도니아 출생이지만 알바니아 국적을 가진 선수로 줄곧 유럽 무대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친 선수다.

광주는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 공간 침투 능력에 강력한 원발력을 장착한 아사니를 지난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영

입했다. 아사니는 지난달 25일 수원삼성과의 개막전에서 교체 투입돼 강력한 원발 슈트로 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이후 2경기에서는 침묵했지만, 이날 해트트릭으로 국가대표 합류 자축과 함께 팀의 새로운 에이스 탄생을 알렸다.

이날 경기 MOM(맨 오브 더 매치)으로 뽑힌 아사니는 경기 후 구단을 통해 "한국 무대에서 첫 해트트릭인 만큼 또 해트트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광주가 많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며 "국가대표팀에 뽑혀 너무 영광스럽고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치고 돌아와 광주FC가 좋은 성적 내는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FC는 이날 아사니의 해트트릭과 엄지성, 이희균의 추가골을 앞세워 인천에 5-0 대승을 거두고 5위에 자리했다.

최동환 기자

## AI페퍼스, 시즌 최종전서 역전승 '유종의 미'

기업은행에 3-2 ... 창단 첫 5승



광주 연고의 여자프로배구 막내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올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역전승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AI페퍼스는 지난 18일 경기도 화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여섯 번째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21-25, 25-10, 12-25, 25-20, 15-13)으로 역전승했다.

최종전에서 6연패 사슬을 끊은 AI페퍼스는 5승 31패, 승점 14로 두 번째 시즌을 마감했다. 창단 첫 시즌에 이어 2시즌 연

속 최하위지만 창단 처음으로 5승 고지를 밟으며 3승 28패(승점 11점)에 그쳤던 지난 시즌보다 나은 성적을 올렸다.

이경수 AI페퍼스 감독대행은 이날 경기에서도 젊은 선수들에게 경험을 주기 위해 박경현과 박사랑, 박연화, 김해빈 등 유망주를 대거 투입했다. 상대 높이에 고전했던 지난 14일 한국도로공사전과 달리 이날은 젊은 피들이 펄펄 날았다. 박경현이 후위 공격 4개 포함 26득점으로 양팀 최다 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이끌었다.

AI페퍼스는 5세트에서 한 차례의 리드도 허용하지 않는 집중력을 자랑했다. 상대가 따라붙으면 다시 달아나는 양상으로 여섯 차례 동점 접전 끝에 15-13 짜릿한 세트 승리를 만들어냈다.

한규빈 기자